

# 朝鮮後期 東萊地域 木造建築의 特性에 관한 研究

- 翼工系 建築遺構에 대한 實測調査를 바탕으로 -

지 성 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 치 상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동래지역, 목조건축, 건축특성, 익공

## 1. 머리말

동래지역의 목조건축 유구는 대부분 임란 이후에 건립된 것들로 당시 이곳에서 유행하던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임란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향교를 위시하여 동래부 관아가 새로 지어지고, 동시에 범어사 등 지역 사찰도 당우의 조영을 통해서 면모를 새롭게 갖추어 나갔다.<sup>1)</sup> 그러나 이 지역 시설들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파괴된 지 80여 년이 지나서나 가능했다. 전란으로 워낙 피해가 커서 재원을 마련하고, 물력을 조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1655년부터는 경주진관에서 독진으로 독립하면서 여러 군진이 설치되어 軍多民少의 첩역이 그 폐단으로 지적될 정도로 공역조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sup>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僧軍은 건축물의 조영

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래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범어사는 승려수 3, 4백 명이 넘는 대찰로 성장하였으며, 1703년의 금정산성 축조를 계기로 성 내에 건립된 국청사와 해월사 등에도 승려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이들 승려들 중 많은 수가 관아와 향교조영을 비롯하여 읍성축조 등에서 공역을 전담하는 등 지역건축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조영활동에 참여하였다.<sup>3)</sup>

한편 1700년대 초엽 이후 募軍이라 불리는 잡역부가 공사에 참여하면서 동래지역의 조영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민간공장 즉 임노동자층이 관아는 물론이고 사찰조영에도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관부의 공사에서 건축공장이 부역되는 사례는 사라지고 대신 일정한 노임을 지급하며 고용하는 것이 상례가 된다.

이처럼 조선 후기 동래지역의 공역기반은 지역 사찰의 공역활동에 의존하던 1700년대와 이후 전업 민간공장들로 대체되는 1700년대

1) 서치상,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建築歷史研究』, 제12권, 3호, 통권 35호, p.41, 2003.9

2) 윤용출,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한국문화연구 2』, p.89, 1989

3) 서치상,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建築歷史研究』, 제12권, 3호, 통권 35호, p.44, 2003.9

후반 이후로 공역집단이 크게 구분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시대에 따른 공장의 신분과 작업여건의 변화상은 본 연구에서 건축기법상의 유사성과 차이를 짐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임금고용제는 건축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실용적 경향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표 1. 연구대상 건축물

구분	건물명	지정	소재지
東萊府官衙	東軒 忠信堂	市有 第 1號	동래구 수안동 421-56
	望美樓	市有 第 4號	동래구 온천동 산 25-4
	獨鎭大衙門	市有 第 5號	동래구 온천동 산 20-4
	將官廳	市有 第 8號	동래구 수안동 50-1
	軍官廳	市有 第 21號	동래구 안락동 830
梵魚寺	捌相, 獨聖, 羅漢殿	.	금정구 청룡동 546
	尋劍堂	.	
	毘盧殿	.	
	彌勒殿	.	
	鐘樓	.	
	不二門	.	
東萊學校	大成殿	市有 第 6號	동래구 명륜동 231-1, 235
	明倫堂		
	攀化樓		
	外三門		

본 연구는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목조건축 중 익공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장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건축적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또한 건축물의 기능과 시기별로 건축기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동래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동래지역의 익공계 공포를 가진 것으로서 동래부관아, 범어사, 동래향교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실측조사에서 얻은 익공 세부 형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실측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었기에 조선후기 목조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조선후기 동래지역 조영여건

임란 이후 동래지역의 복구공사는 범어사 승인공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어사는 자체적인 동원력을 가짐으로서 사찰 내 불전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영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동래지역의 관아를 비롯한 목조건축 복구 작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전쟁의 참화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야 제 모습을 회복하게 된 데서 보듯이 임란 직후 이 지역의 조영 사정은 상당히 어려웠다. 워낙 큰 피해를 입었던 데다가 두 차례의 築城을 계기로 軍鎭이 확충되고 軍額도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이유였다.<sup>4)</sup> 1740년 무렵을 예로서 身役 대상자가 10,276명인데 반해서 傭役자는 9,616명으로<sup>5)</sup> 요역 부담자에 비해서 役摠이 과다해지는 등 군진이 집중된 이곳의 ‘軍多民少’ 양상은 첩역의 폐단이 생길 정도였다. 더구나 이 무렵의 徭役은 ‘募民修築’의 원칙에 따라 烟軍 대신에 募軍을 고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었던 만큼 민정의 공역 동원은 어려움을 클 수밖에 없었다.<sup>6)</sup>

그러나 동래지역에는 募軍 대신 무상 징발이 가능한 僮軍을 확보하고 있었다. 범어사 승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범어사와 그 승군은 산성축조에 무상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를 계기

4) 윤용출,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 2』, p.90, 1989

5) 『東萊府誌』(1740), 各廳武夫, 軍摠, 人吏官屬雜差

6) 윤용출,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 2』, p.45, 1989, 1730년 府城 축조 직후에 마련된 「守城節目」에 축성역에는 募軍을 고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로도 그 규정이 반영되고 있었다.

로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역군과 공장들은 僮作隊<sup>7)</sup>로 전환되어 오랜 기간 성곽의 보수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범어사는 뛰어난 공장을 많이 보유했던 유력한 조영집단으로 1700년대 초부터 80여 년간 동래부의 관아와 향교 조영 때 공역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승인공장은 관영공사의 공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어려운 사정에서도 대규모 축성공사와 관아조영이 추진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당시의 僮役은 사찰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부의 입장에서 역군의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였고, 사찰로서도 관부나 왕실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등 사세 확장의 기회가 되었기에 상조의 의미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이후 임금고용제가 정착되고 민간공장이 성장함에 따라 승인공장은 점점 쇠퇴하게 된다. 승인공장이 주도하던 지역 조영활동은 민간공장이 이어받게 되었다. 민간공장의 성립은 募立制에 의한 募軍<sup>8)</sup>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17세기 초엽 이후 동래부의 읍성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크고 작은 각종 역사에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인부인 모군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모군의 성장과 함께 노임을 받고 일을 하는 전업 건축공장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변화과정은 건축물의 조영에 있어서 새로운 지출비용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노동력에 대한 임금으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건축용 자재의 수급 역시 쉽지 않았다.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雲水山과 金井山은 封山으로 지정되었으며, 목재는 동래부의 관할 아래 관리 및 수급되었다. 임란 후부터 초래된 만성적인 목재 부족상황 때문이었다. 이는 松政의 강화와 관할처를 통한 수급 체제를 형성시켜 목재 부족사태는 만성적으로 계속되었으며, 특히 대재목의 부족은 심각하였다.<sup>9)</sup>

### 3. 건축유구의 건립연대와 건축공장

<표 2>는 동래지역 목조건축물의 건립연대를 추정한 것으로서 시대적 변화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당시 새로운 관리의 임관 시에는 건축물의 새로 고쳐짓는 것이 당시의 상례였다. 그에 더해 건축재료가 주로 목재로 구성되

7) 범어사 승좌대의 경우에는 산성을 수축한 승군을 해체시키지 않고 집단적으로 거주시켜 후에 산성을 보수하는 승역을 부과하였다.

8) 모군은 '삿을 받고 품팔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모군', '모군꾼', '모꾼'은 모두 '공사판 같은데서 품팔이 하는 사람'이며, '모꾼삿'은 '모꾼의 품삿'으로, '모꾼일'이란 '토목공사 같은 일', '모꾼서다'란 '모꾼이 되어 일하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군에 관한 개념은 17세기 이후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군의 고용은 토목공사뿐 아니라 여러 잡역분야에서 전개되었으며 이전의 무상강제노동으로 수급되었던 노동력 체계에서 고가라는 임금이 지급되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력 수급체계가 성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립제를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립제는 관부에서 인부를 모집하여 각공역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립하는 제도였다. 즉 부역노동으로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으로서 노동력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 이희승, 『국어대사전』, p.974, 1961,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p.1410, 1995, 윤용출, 『조선후기 요역제와 고용노동』, p.182, 1998 참조

표 2. 추정연대

建物名	工事	年度
獨鎮大衙門	創建	1700 (肅宗26)
將官廳	移建	1706 (肅宗32)
忠信堂	扁額	1711 (肅宗37)
天王門	創建	1699 (肅宗29)
普剎樓	創建	1699 (肅宗29)
毘盧殿	重修	1721 (景宗 1)
尋劍堂	推定	1800年代
不二門	推定	1800年代
望美樓	推定	1800年代
軍官廳	增築	1812 (純祖12)
東萊鄉校	移建	1813 (純祖 13)
彌勒殿	重建	1889 (高宗36)
鐘樓	推定	1889 (高宗36)
捌相獨聖 羅漢殿	重建	1905

9) 위의 논문, p.50

었기에 이러한 특성상 수리와 보수가 자주 행해져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창건 시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문헌상의 기록을 살펴봄으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 시기를 유추해내고자 하였다.<sup>10)</sup> 각 건축물의 중건 및 보수 연대와 그 형태적 특성이 유사한 몇몇 그룹에 있었기에 건립연대를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선 동래부의 관아건축물인 독진대아문은 1700년 창건 때, 장관청은 1706년 이건 때, 충신당은 1711년 편액 때<sup>11)</sup>, 군관청은 1813년 증축 때로 추정된다. 망미루는 구체적인 조영 연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sup>12)</sup> 그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1800년대의 건축물로 추정하였다.

범어사는 16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심검당과 불이문은 그 창건 연대만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나 익공의 살미의 형태가 미륵전의 그것과 유사해 이들의 1800년대의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종루 역시 그 형태적 유사성<sup>13)</sup>을 통해 미륵전과 비슷한 시기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천왕문과 보제루는 1699년 창건 때, 비로전은 1721년 중수 때, 미륵전은 1889년 중건 때,

10)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공사 또한 다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사는 대부분 부분 보수나 낡은 부재의 단순교체일 것으로 보아 연대추측에서 제외하였다.

11) 조선 후기 부사가 새로 부임할 때 관사는 새롭게 고쳐 짓는 것이 상례였다. 충신당은 1711년 편액의 기록만 있으나 당시 건축물의 대대적인 수보가 이루어진 후에 편액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망미루는 1742년 창건의 기록만 남아있다. 그러나 익공의 형태를 통해 현 모습을 보이게 된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출목이 없는 이익공으로 하부의 살미는 앙서형으로 상부의 살미는 쇠서형으로 되어있으며 연봉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군관청의 그것과 흡사하다.

13) 일출목 이익공으로서 하부의 살미와 상부의 살미가 모두 앙서형으로 되어 있으며 살미의 끝은 직절되어 있다.

팔상, 독성, 나한전은 1905년 중건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이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천왕문, 보제루, 비로전, 심검당, 불이문, 미륵전, 종루, 팔상·독성·나한전의 순이다.

동래향교는 1813년 동래읍성의西城 밖으로 이건(5차)된 기록이 있으며 이 당시에 현유구의 원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실측조사에 의한 건축유형 분석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기에 평면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동래부 관아의 건축물이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큰 규모였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주간거리는 반비례의 양상을 보였으며 이 점은 관심을 둘 만하다.<sup>15)</sup> 주간거리를 곡적으로 환산한 값은 조선시대의 영조척과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영조척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치수는 군관청, 심검당, 비로전, 미륵전, 불이문, 천왕문, 대성전, 명륜당의 주간에서 나타난다.<sup>16)</sup>

지붕형식은 맞배지붕이 주를 이룬다.<sup>17)</sup> 동헌 등 관아건축물 중 격식을 갖추어야 할 건축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맞배지붕을 짜 올렸다.

14) 본 연구에서는 익공의 형태에 따라 단순초익공, 순수익공, 다포형익공, 치장형익공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조영여건과 결부시켜 건립시기를 설정하였다. 5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다.

15) 규모가 큰 관아건축물의 주간거리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인 범어사 건축물의 주간거리가 큰 값을 가졌다. 그리고 관아와 향교에서는 정면의 주간거리가 측면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사찰에서는 정면의 주간거리가 측면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16) 조선시대의 영조척은 곡적으로 환산하면 1.01~1.03의 범위를 가진다. 동래지역의 영조척을 보면 관아에서 정면 1.068, 측면 1.026, 범어사에서 정면 1.054, 측면 1.076, 동래향교에서 정면 1.139, 측면 1.014이다.(곡적으로 환산한 값임)

17) 동래부 관아 팔작지붕 67%, 맞배지붕 33%. 범어사 팔작지붕 15%. 맞배지붕 85%, 동래향교 팔작지붕 25%, 맞배지붕 89%.

표 3. 동래지역 익공현황

구분	건물명	형태	배열	출목수		살미의 형태		
				외부	내부	하부	상부	장식
동래부관아	동헌 충신당	초익공	4면	·	·	쇠서	·	운공
	장관청	초익공	전면	·	·	쇠서	·	·
	독진대아문	초익공	전후면	·	·	쇠서	·	운공
	군관청	이익공	전면	·	·	양서	쇠서	운공
	망미루	이익공	4면	·	·	양서	쇠서	붕두
범어사	팔상, 독성, 나한전	이익공	전면	1	·	양서	쇠서	붕두
	심검당	이익공	전면	1	·	양서(직절)	양서	운공
	비로전	이익공	전면	1	·	쇠서	쇠서	·
	미륵전	이익공	전면	1	·	양서(직절)	양서	운공
	종루	이익공	4면	1	·	양서(직절)	양서	붕두
	보제루	이익공	4면	1	·	쇠서	쇠서	운공
	천왕문	이익공	전후면	1	·	쇠서	쇠서	·
불이문	삼익공	전후면	2	2	양서(직절)	양서	운공	
동래향교	대성전	이익공	전후면	1	·	양서	쇠서	붕두
	명륜당	이익공	전면	1	·	양서	쇠서	붕두
	반화루	이익공	4면	1	·	양서	쇠서	붕두
	외삼문	삼익공	전후면	1	·	양서	쇠서	붕두

처마는 겹처마와 홑처마가 골고루 사용되었으며, 격식이 높은 건축물에 주로 겹처마가 많았다.

주경과 주교의 실측치를 통해 건축물의 기둥에 사용된 목재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관아에서 사용된 기둥재는 그 굵기는 적으나 가장 긴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관아라는 품격과 그 규모에 어울리는 입면의 모습을 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목조건축물의 비례에 있어서 규모와 높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동래지역 목조건축의 익공형식은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익공은 출목의 유무와 살미첨차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출목은 동래부 관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으며 범어사와 동래향교 건축물에서는 모두 출목을 두고 있다. 이는 관아에서 치장을 절제하였음을 보여 주는데 출목과 함께 주로 초익공을 사용함으

로서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범어사와 동래향교에서는 이익공이 주로 사용되고 삼익공까지 나타났다. 익공의 배열은 지붕형식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했다. 한편 살미첨차의 형태는 쇠서, 양서, 직절형 양서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첨차의 상부는 붕두와 연화무늬 등을 두어 장식하기도 하였다.

익공의 구체적인 치수는 건축물 간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sup>18)</sup> 출목거리는 동래향교에 비해 범어사가 큰 값을 가졌다. 살미첨차의 치수 역시 마찬가지였다.<sup>19)</sup> 이러한 경향은 보아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살미첨차는 보통 3개의 부재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부재의 개별 치수는 동래부 관아와

18) 그림 1은 익공의 치수를 실측하는 근거가 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기둥의 중심에서 1출목 외목도리 중심까지의 출목거리, 익공 살미첨차의 내민길이와 높이 및 개별부재의 단위치수를 측정하였다.

19) 범어사의 익공 살미첨차의 치수는 동래부 관아에 비해 가로 1.3배, 세로 2배 정도 큰 크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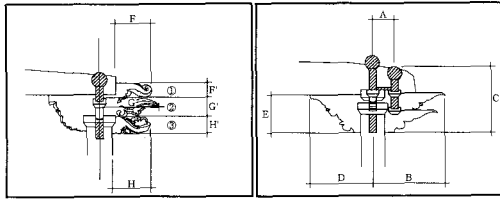


그림 1. 익공실측개념도

동래향교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범어사에서는 관아보다 가로 치수는 적고, 세로 치수는 커서 입면에서 공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벽면에 위치한 행공첨차의 개수에 따라 행공첨차가 없는 경우, 1개의 행공첨차로 장혀를 받치는 경우, 행공첨차를 2단으로 겹쳐 놓아 장혀를 받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부재 맞춤수법과 상호 구성에 있어서는 사찰건축이 그렇듯 범어사에서 화려하고 치장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래부 관아 및 동래향교에서는 맞춤수법으로 간단한 장부맞춤이 사용된 반면 범어사에서는 연귀맞춤을 사용하여 공을 들였음을 보여주었다.<sup>20)</sup> 이와 같은 경향은 상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꽃살창호와 빗살창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井字살 창호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5. 동래지역 목조건축의 특성 고찰

임란 이후의 인력과 자재의 부족은 건축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실측치를 통해 한정된 수량의 자재와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타개책으로 건축자재를 규격화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어칸과 협칸의 간격이 유사하게 나타나 기둥 상부의 부재의 규격화를 가능케 맞배지붕의 사용율이 전체 건축물의 75%에 달함으로서 건축물의 좌우측면에 들어가는 자재를 절약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대사찰에 속하는 범어사의 대응전이

20) 팔상, 독성, 나한전, 심검당, 비로전, 불이문에서 연귀맞춤을 사용한다.

팔작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점은 맞배지붕이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지붕형식을 확실케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비에 노출되어 있는 기둥의 하부를 목재가 아닌 석재로 구성함으로써 목재의 부식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다. 동래부의 망미루, 범어사 일주문, 팔상, 독성, 나한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 동래향교의 대성전, 반화루 에서도 기둥의 하부를 석재로 구성하였다.

표 4. 공장 및 시기별 익공

구분	승인공장주도		민간공장주도	
	단순초익공	순수익공	다포형익공	치장형익공
형태				
사례	독진대아문 동헌 충신당	천왕문 보계루 장관청 비로전	종루 심검당 미륵전	군관청, 망미루 팔상, 독성, 나 한전, 대성전, 명륜당, 반화루 , 의삼문

동래지역의 목조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익공의 수법은 공사에 참여한 공장의 소속이나 시기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sup>21)</sup> 이 지역 건축의 익공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편의상 살미첨차의 조각형상을 기준으로 단순초익공, 순수익공, 다포형익공, 그리고 치장형익공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22)</sup>

21) 본 연구는 형태적 분류의 원인에 관해 시기적 요소만이 아닌 공역 전담공장과의 결부시켰다. 근거로서 세부치수의 유사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같은 공장집단이 조영활동을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 통해 공장의 조영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 유사한 형태의 익공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었다.

22) 단순초익공 : 기둥 위에 출목이 없는 초익공을 올려서 雲形 草刻한 보뿔목을 받치게 한 극히 간단한 형식이다. 순수익공 : 익공뿌리가 마치 새의 날개처럼 생긴 전형적인 익공으로 처리되고, 초새김도 하부에 쌍S자 모양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치장은 극히 절제된다. 익공 뿌리는 직선으로 나와서는 끝이 아래로 향하는 같은 형상을 두 개 겹쳐놓고, 그 위에 삼차두형에 가까운 간략한 형상의 보뿔목을 받게 했다. 다포형익공 : 살미

동래부 관아, 범어사, 동래향교는 용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지역적으로 묶여있으면서 동일공장에 의해 조영되었기에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sup>23)</sup> 한편 용도에 따른 차이는 익공의 형식과 행공첨차의 배열, 벽면부재의 맞춤수법 등 치장적 부면에서 두드러진다.<sup>24)</sup>

## 6. 결론

본 논문은 조선후기 동래지역 목조건축물 중 익공계 건축유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영여건에 따른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동래부 관아, 범어사 불전, 동래향교의 건축물로서 그 평면, 입면, 공포, 의장, 지붕의 형식에 대해 실측 및 조사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당시 이 지역의 고용방식, 자재의 수급사정 등의 조영여건과 관련지어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공통적인 건축 경향과 그 변화상 및 용도별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렇하다.

첫째, 실용주의적 경향의 건축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임란 이후 부족한 자재와 인력 등 어려운 조영여건에 대한 타개책이었으며, 평면치수의 규격화, 가구방식의 경제화, 익공수법의 간소화, 의장요소의 차등화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익공의 수법은 공사에 참여한 공장의 소속이나 시기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살미첨차의 초각형상을 기준으로 단순초익공, 순수이익공, 다포형이익공, 그리고 치장형이익공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순초익공과 순수이익공은 승인공장에 의한 것으로 임란 직후 자재와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 맞게 형태가 간단하며 장식이 절제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다포형이익공과 치장형이익공은 승인공장이 쇠퇴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공장이 주도하던 시기의 것으로 화려하며 치장적 경향이 강했다.

셋째, 용도의 차이에도 동시기 건축물의 세부치수는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각 시기의 공역 전담집단이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건축물의 조영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건축용도에 따라 건축규모, 익공형식, 세부치수, 장식수법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었다. 관아와 향교건축은 간소한 구성과 장식을 절제하는 검약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사찰건축은 화려한 구성과 다양한 장식 및 의장수법 등 치장적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론치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측조사에 의한 현황만을 분석하였기에 창건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건물의 중간, 중수 작업에 대한 변화상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영여건을 근거로 하여 실측치를 연구한

의 끝부분이 직절되어 있으며 위를 향하고 있는 양서형으로 제1첨차와 제2첨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종루에서는 여간 공포의 상부에 龍頭를 두어 장식을 더하며 귀면 공포의 살미는 3개를 두어 중첩시키고 있다. 특히 관아건축에서 이러한 익공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치장형이익공 : 살미의 하부는 양서로 되어 있으며 연꽃이나 연봉을 조각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 위에는 쇠서형으로 된 살미를 놓고 익공에는 龍頭, 鳳頭, 蓮花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23)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치수를 비교하였다. 본 고에서는 부족한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한다.

24) 동래부 동헌 충신당에서는 초익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진대아문에서는 여간에만 초익공이 사용되고 헐칸에는 익공을 생략하기까지 함으로써 관아건축의 검약적인 건축경향을 잘 드러낸다. 반면 범어사와 동래향교의 경우에는 주로 이익공식의 익공으로 출목을 둔 공포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동래부 관아에서는 망미루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서 행공첨차가 없었으며, 동래향교에서는 모두 1개의 행공첨차로 장혀를 받치고 있었다. 반면 범어사의 팔상, 독성, 나한전, 미륵전, 비로전, 천왕문에서는 1개의 행공첨차로, 심검당, 종루, 불이문, 보제루에서는 2단으로 겹쳐 놓아 장혀를 받치고 있었다.

것은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더욱 정밀한 실측 조사 작업 및 타 지역과의 비교, 고찰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본 연구가 조선후기 동래지역과 목조건축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東萊府誌』(1740), 『東萊府築城謄錄』(1730)
2. 서치상,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건축역사연구』, 제 12권, 3호, 통권35호, 2003.9
3. 김숙경, 「朝鮮後期 東萊地域의 官營工事に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김동욱, 「朝鮮後期 建築工事に 있어서의 木材供給 體制」,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17호, 1984.4
5. 윤용출,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한국문화연구 2』, 1989
6. 『東萊郷校 實測調査報告書』, 부산시 동래구, 1989. 『梵魚寺大雄殿 修理工事報告書』, 부산시 금정구, 2004